

연락처 안 남긴 ‘물피 뺑소니’ 급증

〈차량 파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주차장 등 주정차 사고 도주 처벌 광주서만 하루 12건꼴 총 1714건 발생...‘문콕사고’는 제외

광주에서 주·정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물피 뺑소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게 됐는데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주하는 ‘얍체 운전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지역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달아나는 물피도주 건수는 ▲2017년 11월 384건 ▲2017년 12월 409건 ▲2018년 1월 402건 ▲

2018년 2월 366건 ▲2018년 3월 현재 153건으로 4개월여 동안 총 1714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평균 12.6건 꼴이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광산서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73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으며, 서부서 688건, 북부서 106건, 동부 101건, 남부서 85건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 운전 등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찰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도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부 운전자와 물피사고 처벌을 알면서도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자는 비양심적 운전자들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은 물피도주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 내용과 CC-TV, 블랙박스 등을 관독해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모든 물피사고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물피도주 과정에서 운전자의 사고 인식행위 등을 종합해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바뀐 법에 따라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물피사고의 경우 범칙금은 부과되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은 벌점 부과대상이 아니어서다.

이 밖에도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차의 문을 짚는 이른바 ‘문콕’사고도 물피 사고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콕의 경우 물피사고 접수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 “문콕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나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유령법인 설립 대표통장 개설 도박조직 팔아넘긴 일당 구속

유령법인을 통해 160여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조직에 팔아 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대표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동안 서울 일대에 유령법인 48개를 설립한 뒤 통장 160개를 개설, 개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팔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통장은 개인통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개설할 수 있어 최근 범인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사실 향하는 이윤택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8일 오전 서울 중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취재진을 통과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환뉴스

“정기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업무 사망 가전제품 판매 직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마트에서 정해진 휴식시간도 없이 정부의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게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하다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특정 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근로 계약서상 A씨의 근무시

간이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도, 실제 근무시간은 영업준비와 마감 후 정리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A씨의 휴게시간이 손님이 없을 때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던 A씨는 2014년 11월 3층 매장 입구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에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텔 살며 아들 양육의무 소홀 30대 친모 징역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는 “자녀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여·3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3~4월 광주 모텔에서 아들(14)과 함께 살며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혀거나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불결한 상태로 방

치했다. 감기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양육·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 나지 못한 채 자녀를 다시 양육할 경우 재범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소래동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70대 추락사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소래동 무등산 G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22층 높이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73)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광주동부경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아파트 외벽을 매그립게 하는 작업(견출 작업)을 하기 위해 옥상에서 안전줄을 타고 내려오던 중 줄이 풀려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일용직으로 해당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무해 왔으며, 이날 외벽 마감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소장, 동료 작업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후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로 의지하며 살던 독거노인 돈 때문에 ‘살인극’

광주북부경찰, 60대 검거

같은 아파트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독거 노인들이 채무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18일 광주북부경찰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해 등)로 손모(여·6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9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여·8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숨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구청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다.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마지막으

로 A씨의 집을 출입한 같은 아파트 주민 손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A씨에게 수년에 걸쳐 5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그나마 형편이 넉넉했던 A씨는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손씨는 생활이 어려워 식당일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손씨는 이자를 깎아달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안에 있던 귀금속도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나를 협박하고 무시했다. 나한테서만 비싼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물 맛 봐라” 장남삼아 양젓물 먹인 방앗간 주인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골손님에게 장남삼아 양젓물을 목물이라고 말한 70대 방앗간 주인이 경찰서 행.

○...18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방앗간을 운영하는 A(여·71)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자신의 방앗간에서 손님 B(여·65)씨에게 양젓물을 목물이라고 말해 맞보도록

했다. B씨는 양젓물을 아직 굳지 않은 목으로 생각해 손가락으로 짚어 맛봤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앗간에서 양젓물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손님(B씨)이 ‘뉘냐’고 묻길래 장난으로 목물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B씨가 갑자기 맛을 볼 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선지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h3>영광주택매매(급매)</h3> <p>전원주택(영광읍)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주인직매 010-6670-9800</p>	<h3>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h3> <p>·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p> <p>·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p> <p>▶ 매가 8억 5천만</p> <p>① 월곡동.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②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p> <p>010-7384-7800 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p>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p> <p>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비됨)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p> <p>3) 담양군 담양읍 (무인빌) 감정 30억2천4백→최저 16억9천</p> <p>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p> <p>5) 광산구 수암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p> <p>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p> <p>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p> <p>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p> <p>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숙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p> <p>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p> <p>11)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p> <p>1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p>A.P.T·주택·공장·토지 (기타)</p> <p>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p> <p>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p> <p>③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p> <p>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p> <p>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p> <p>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p> <p>⑧ 광산구 삼가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p> <p>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p> <p>010-6670-9800 062)382-5500</p>	<h3>경매교육 (3월초 개강)</h3>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평동 (12층 7층상가) 주최원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곡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백</p> <p>[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p> <p>010-6670-9800 062)382-5500</p>
---	--	---	--